

자료제공 : 2022. 12. 27.(화)
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

도로관리과장	이정화	2133-8150
도로관리팀장	윤인식	2133-8152
담 당 자	양재신	2133-8160
	손창수	2133-8181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2매

서울시, 28일 새벽 눈 예보로 제설 비상근무 돌입

- 28(수) 서울 1cm 눈 예보...서울시·자치구·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체제
- 제설차량·장비 전진배치, 제설함 제설제·장비 보충 등 제설 사전준비
- 눈 그친 후 영하권의 기온으로 도로 결빙 우려, 보행자·교통안전 주의 당부

- 12월 28일 새벽 서울에 1cm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27일 23시부터 제설 비상근무(보강)를 발령하고 제설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해 강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.
-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, 인력 649명과 제설장비 1,197대를 투입하여 강설에 대비한다.
- 골목길,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, 내 집 앞, 내 점포 앞 눈치 우기 동참도 당부했다.

- 이번 눈은 이른아침 눈이 내린 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주요 간선도로, 주택가 골목길 등 도로 결빙이 우려되오니,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당부했다.

-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“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눈까지 내리면 도로 결빙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, 자가용 운행은 자제하고,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”고 말했다.